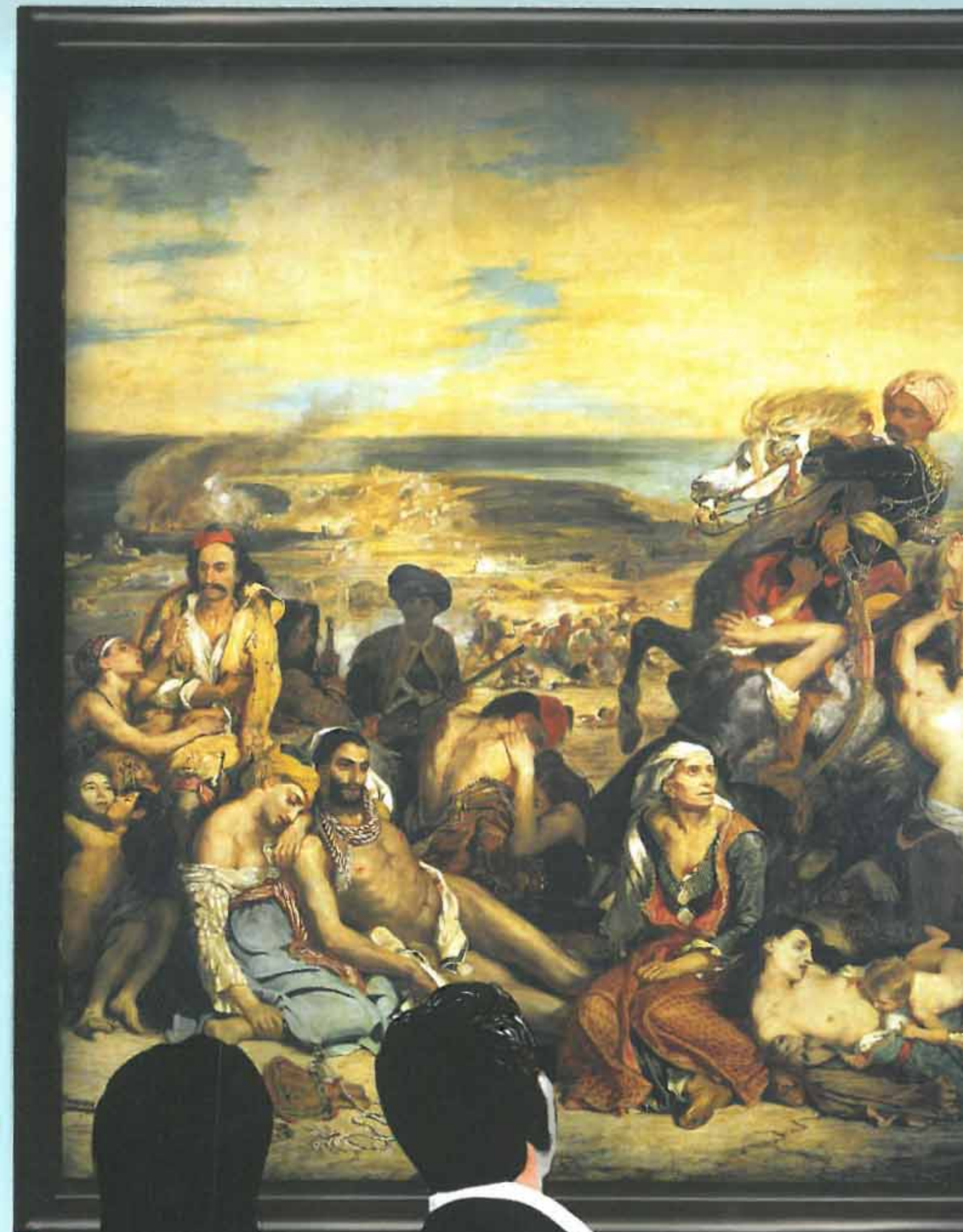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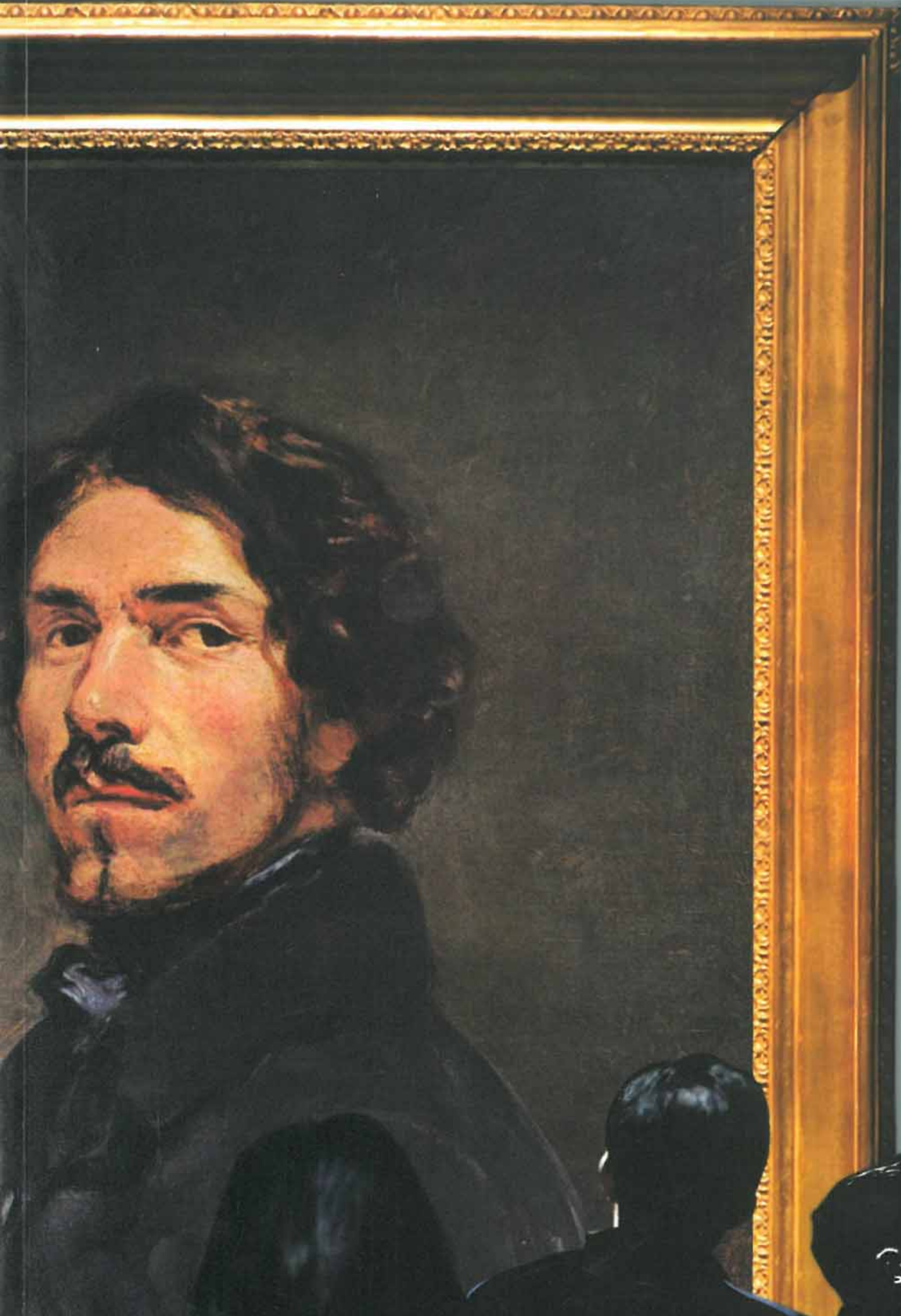


beyond

The In-flight Entertainment Magazine of **KOREAN AIR**

August 2013 Vol. 83

책 속에서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이벤트를
찾아보세요



낭만주의의 심장, 외젠 들라크루아
Romanticism and Eugène Delacroix

낯설고도 익숙한, 카를리투 카르발료사

CARVALHOSA, UNFAMILIAR YET FAMILIAR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뿌리째 뽑힌 나무 한 그루가 아찔하게 걸려 있고, 요상한 형태의 석고 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 카를리투 카르발료사의 작품은 갤러리를 무대로, 전시회를 한 편의 판타지 영화로 바꿔버린다.

Something that doesn't make much sense stands before you. An uprooted tree is suspended in the air. The artwork of Carlito Carvalhosa transforms a gallery into a stage and an exhibition into a fantasy.

by 김민정 Kim Min-jung

브라질 출신의 작가 카를리투 카르발료사가 국제갤러리를 통해 한국에 처음 소개된다. 그는 지속적으로 공간을 탐구하는 설치 작품을 선보여왔다. 사실 그가 2011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갖기 전까지, 브라질 밖에서 활동하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행운아라는 얘기는 아니다. 뉴욕에 오기까지 브라질 내에서 단단히 입지를 다져왔다. 50세가 되어서 찾아온 행운 덕에 이제는 세계 우수 미술 잡지에 차근차근 이름을 새기고 있다. 8월 30일까지 서울의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카를리투 카르발료사를 인터뷰했다. 아직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건, 한편으론 자유롭게 감상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였다. ■

김민정은 <비욘드>의 에디터다.

Brazilian artist Carlito Carvalhosa is unveiling his works in Korea for the first time at the Kukje Gallery.

He is known for creating art installations that are inspired by the study of space. He exhibited his work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in 2011, but before that, he had not shown much work outside of Brazil. His rapid rise was many years in the making. He built a solid reputation in his home country before reaching New York, when at the age of 50, he was the beneficiary of some good luck.

His name can now be seen in world-renowned art magazines.

We interviewed Carlito Carvalhosa, who will hold a private exhibition at the Kukje Gallery in Seoul until Aug. 30. Not much is known about this artist in Korea, so visitors will be able to appreciate his artwork with a clean slate. ■

Kim Min-jung is an editor for *beyond*.

1 내가 도착했을 때 그랬다, 2006 2 그게 낫다, 2010 3 방문을 위한 로드맵, 2010
1 Já estava assim quando cheguei (It was like this when I got here), 2006 2 Melhor assim (That's better), 2010 3 Roteiro para Visitação (Roadmap for visitation), 2010





대기실 Sala de Espera (Waiting room), 2013

INTERVIEW



카를리투 카르발로사 Carlito Carvalho

유년 시절은 어땠는가? 상파울루에서 자랐지만, 방학 기간엔 (당시 브라질의 방학은 꽤 길었다) 주로 시골에서 지냈다. 그래서 혼란과 에너지로 가득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이와는 동떨어진 시골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 당시 시골은 전화나 전기도 없었고 비포장 도로를 오래 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어릴 때 꿈은 만화가였다. 10대에 접어들어서 학교 친구들과 만화 잡지를 발행하는 데 열중하기도 했다.

What was your childhood like? I grew up in the city of São Paulo and, during vacations—which used to be quite big in Brazil in those times—I went to the countryside. So I had this experience of a fast-growing city, with all the chaos and energy, and also a strong experience in the countryside in Brazil, which was quite isolated at the time, with no telephones or electricity, dirt roads, long distances and so on. As a child, I thought I'd be a cartoon artist, and even in my teens, I was publishing cartoon magazines with my school friends.

어떤 예술 교육을 받았는가? 미술학교에서 공부한 적은 없다. 건축학 학위는 있지만,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한 적은 없다.

What kind of art did you study? I did not go to art school. I have a degree in architecture, but I really never did that professionally.

그렇다면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예술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학교에 진학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행복하지 않았다.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떤 결단의 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그냥 관심이 생겼던 것 같다.

What made you decide to get into art? It was not a decision, I did not go to art school, but at a point I really was not happy with what I was doing and found that art was what I really wanted to do. It was very natural, there was really no decision—I was just interested in it.

작업을 시작할 당시, 브라질의 미술 시장은 어떤 추세였나? 내가 업계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1980년대에는 회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시기였다. 나 역시 매우 관심 있었다. 그러나 당시 브라질은 상당히 단절된 시기였기 때문에 책이나 예

술 잡지를 찾기 쉽지 않아서, 자료를 모으거나 흑백의 이미지를 원색으로 바꾸는 작업이 매우 어려웠다.

What was the trend in the Brazil and global art market when you started out as an artist? Did that affect you in some way? I started in the '80s. There was a strong return to painting that I was really interested in. There was a strong isolation at that time. It was quite difficult to find books or art magazines, so gathering materials or turning a black-and-white image into a full-color work was very difficult.

작품의 재료나 표현 방식, 주제 등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화가로 이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고, 지금도 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부자재를 활용해 작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여러 재료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회반죽, 도자기(욕실용), 형광등, 전신주, 철물점에서 살 수 있는 목재 기둥, 거울, 일반 용지 등 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순한 재료들을 활용한다.

How has your work, in terms of medium, way of expression and subject, changed? I started as a painter and I still paint, but in time I came to think that one could work in different media, and eventually I started working with many different media, usually with simple materials from daily life: plaster, ceramics—such as the kinds used in bathrooms—fluorescent lights, telephone poles, wooden beams, mirrors, common paper and so forth.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뉴욕 현대미술관 중심에 위치한 아트 리움에 설치미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인상적인 컬렉션과 체계적인 예술 프로그램을 갖춘 최고의 미술관에서 제의를 받았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전시를 통해 내 작품과 관람객 모두가 한 걸음씩 전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 경험으로 내 작품에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가능성들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Why did you decide to show your work at the Museum of Modern Art? And how did the exhibition affect you? I was invited to install my work in the atrium at MoMA, a very big space in the center of the museum. It was an honor, for it is an amazing museum with the most impressive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ollection, and also a very strong contemporary program. It was a great honor to exhibit in this museum, and on the other hand, the exhibition is an experience, it should be a way to move things forward in the work and also for the viewer. The experience at MoMA gave me new ideas and possibilities for my work.

〈만지지 마세요〉(2004)나 〈날들의 합〉(2010, 2011)처럼 전시 제목이 흥미롭다. 작품과 제목의 연관성에 대해 말해달라. 작명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다. 작품명이란 그 작품과 대조되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름이 그 작품을 묘사하기보다는 다른 가능성에 이르게 하는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각 작품의 이름은 사상적인 측면에서 전시 회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도 나타내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 작명 자체는 예술 작업이 아니지만, 그것에 이르는 과정은 될 수 있다.

The names of your works are interesting. How do

you come up with the titles? I put great care into naming the works. I believe the name should create a confrontation, a new dimension for the work. I feel it is not a representation of the work, but rather a verbal dimension that has to reach into other possibilities. They have a connection in theory with the exhibition, but they have to stand by themselves. They are not the work; they could be a path to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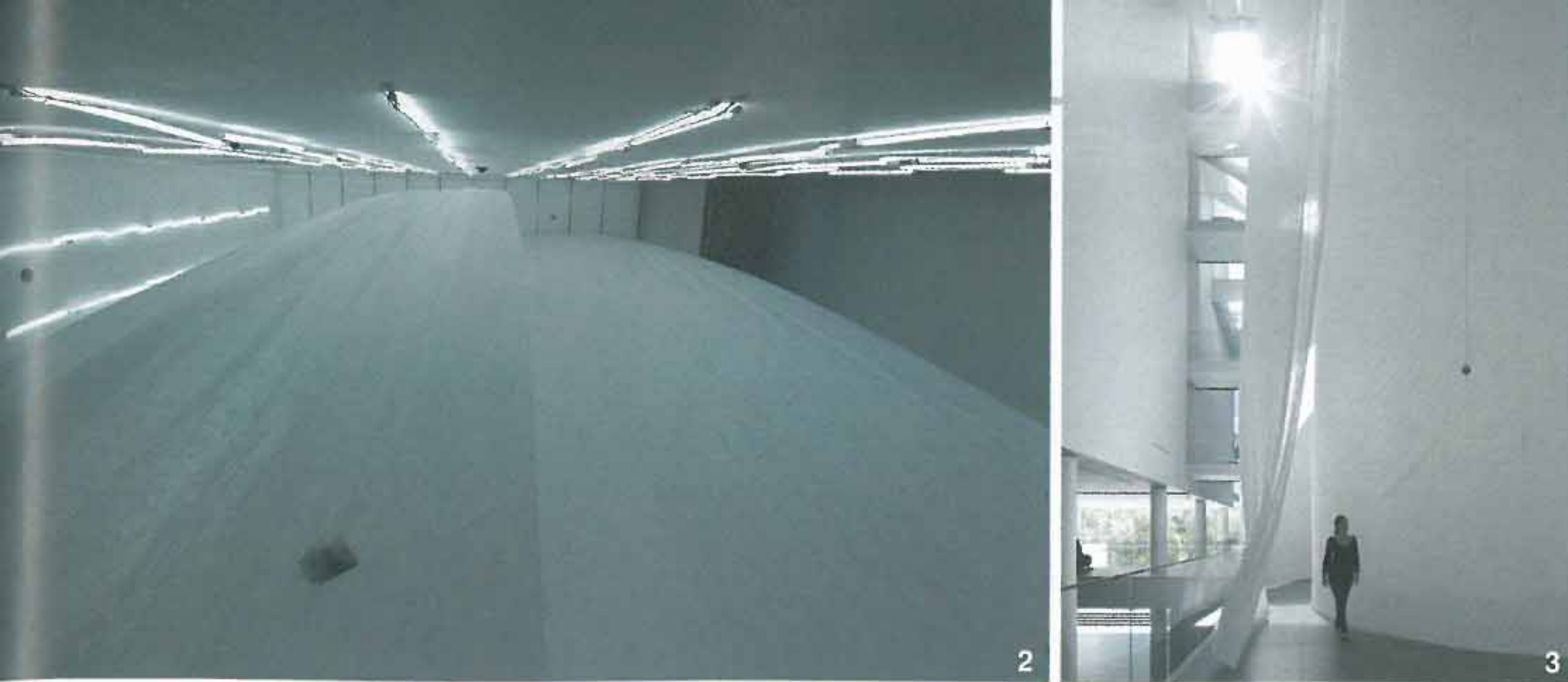
재료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사실상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재료들에 관심이 많다. 즉 일종의 무형의 상태가 되지만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어 그 의미 위로 '부유'하고 있는 것들을 느낀다. 아무도 이러한 재료에 대해 음미하지 못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해 진정 특별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What is your criteria for picking the materials that you use for your works, such as fabric, logs and fluorescent lights? I'm interested in common materials that one sees so often every day that one does not in fact see them any more. They become sort of invisible, but they have very strong associations and I feel that in a way they "float" over their meaning. No one considers anything about them—but they can really become something else, they can be what they have never been before.

〈날들의 합〉(2010, 2011)은 촉각, 청각, 시각 등 많은 감각으로 작품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날들의 합〉은 '기억'에 대한 작품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 투영된 무언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안다고 믿지만 이미 의식 저편으로 잃어버린 공간, 엄청나게 변형된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에 있던 적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보고 듣고 만지는 이 모든 감각이 한층 더 고조된다. 이것은 공간의 활성화다. 또한 사실상 그곳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재료들로 이루어진다. 이 공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놓아둔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Regarding *Soma dos Dias (Sum of Days)* (2010, 2011), you allow viewers to feel your works with many different senses like the sense of touch, hearing and sight. Why? *Soma dos Dias* is also about memory, about going into a place that one believes one knows and losing one's hold on it: getting lost in the whiteness, creating something that your mind projects—usually a memory into that vast shifting and transforming situation. Touch, sound and sight are heightened by the fact that one has not been there before. It is an activation of the space, but also it is done with such simple materials that there is in fact not much there: there is what we do not see, what we put there.





1 만지지 마세요, 2004 2, 3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선보인 <날들의 합>(2011)

1 Favor não tocar (Please do not touch), 2004 2, 3 Sum of Days (2011) at the Museum of Modern Art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주제는 무엇인가? 내 작품은 우리의 경험을 변형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미리 준비한 무언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고 느끼는 것이다.

What is the final message that you are trying to convey through your work? I believe the work is a tool for transforming our experience; it is not really about saying something that is ready beforehand, it is about seeing.

당신의 작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지금 현재로는 <대기실>(2013)에 가장 애착이 간다. 아마도 가장 최근에 작업한 작품이라 더 마음이 가는 것 같다.

What is the most memorable among all the pieces that you have worked on? Also, which is your favorite? At this point I'm pretty interested in *Sala de Espera (Waiting room)* (2013), possibly because it is the last work, it moves me the most.

<대기실>은 어떤 작품인가? 새로 지은 상파울루 현대미술관 건물 안에 설치한 2000제곱미터 넓이에 달하는 거대한 설치미술품이다. 나는 버려진 전신주를 배열해 오스카르 니에메에르가 디자인한 백색 방의 본질적 성격에 상반되는 다른 종류의 질서를 창조하고자 했다. 흰 기둥과 전신주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물질과 본질로 만들어졌다. 하나는 백색의 깨끗함, 무한함, 순수함을 가졌고, 다른 하나는 시간의 흔적이 남아 더럽혀지고 수평으로 자라는 숲처럼 수평 추력(水平推力)에 의해 잡아당겨진 모습이다. 전신주와 나무의 생을 다한 후 재결합된 이 기둥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이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장소의 개념, 우리가 있는 곳,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What is *Sala de Espera* about? It is a vast installation occupying 2,000 square meters at the new building of São Paulo's Museum of Contemporary Art. My idea was to create a different kind of order using discarded telephone poles that challenge, through their disposition and nature, the pristine room designed by Oscar Niemeyer. There is a clear connection between the white columns and the poles, but they are made of different stuff, different essence. One is white, infinite, specular, pure. The other soiled by time, with a past that has left its mark on them, pulled by a horizontal thrust, like a horizontal forest. What are those poles—that are

as much ex-poles, ex-trees—that reunite in this place after a life in the land? How should we name them? It is truly not about the building, much more about our notion of place, where we are and what is before us.

영감을 얻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일상 사물에는 많은 의미가 존재한다. 그저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데서 영감을 얻는다. 산책을 많이 하고, 실재하지 않아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데생, 모형 만들기, 상상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그림을 그리고 메모를 많이 한다. 메모를 다시 읽어보진 않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Where do you draw your inspiration from? My inspiration is that there is much more to be seen in everyday things, one just has to look. I walk a lot, and I like to try things in many different ways: drawing, making models, imagining things—like seeing them in front of you without them being there. I draw and take a lot of notes, which I usually never read, but (they) keep me going.

평소 친분이 있는 작가들이 있는가?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며 지낸다. 그들과 그들의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Are you acquainted with other artists? I'm acquainted with a great number of artists, usually because I like them and their work.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특히 설치미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난 내 작품이 설치미술 그 이상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면을 가진 예술 그 자체에 관심이 많다. 회화와 조각에 푹 빠져 있지만 이러한 장르 구분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각 분야에서 무엇을 창조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Is there any special reason you've chosen installation art? I think of my work as something that goes beyond installation. I am interested in art in its various aspects. I have a strong interest in painting, sculpture and so on, but mainly I feel these categories are not that important, it is more what you do with them that matters.

미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 정말 모르겠다. 성인이 된 후 이 일에만 전념해왔다. 이 걸 하지 않았다면, 뭔가 다른 길이 열렸을 것이다.

What do you think you would be doing right now if you weren't an artist? I really have no idea. I have been doing this my whole adult life. But if not, I'm sure something would have come.

지금까지의 작품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전시회는 브라질 조각박

물관(MuBE)에 전시된 <두 개의 물>(1999), 살바도르의 <지구개>(2008)와 <방문을 위한 로드맵>(2010),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날들의 합>(2011), 상파울루의 <대기실>(2013), 상파울루 주립 회화관의 <날들의 합>(2010) 등인데, 모두 다 나열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마치 환상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느낄 때다. 내가 꿈꾸던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유의 무언가가 탄생하는 그 순간이다.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을 이끄는 그 무언가를 기억해내고자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곳에 존재하는 것과 당신의 기억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다.

Could you tell us about the most memorable episode related to your artwork in your entire career? The exhibitions that were very important for me include *Duas águas (Two waters)* (1999) at MuBE, in São Paulo; *Apagador (Eraser)* (2008) in Salvador; *Roteiro para Visitação (Roadmap for visitation)* (2010) in Salvador; *Sum of Days* at MoMA; *Sala de Espera* at MAC São Paulo; *A Soma dos Dias* at the Pinacoteca in São Paulo. I may be forgetting some.

But I think the most memorable are the moments when one feels one has seen something, like a hallucination, and one is not really sure: only in the making will it become not what one has dreamt, but it will be its own thing. Something to which you can aspire, you can try to remember what got you to this point, but there is a void between what's there and your memory. It is all about what one sees and senses.

현재 전시 준비로 바쁠 텐데, 이번 전시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 이번 전시회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 상파울루에 아주 큰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내가 최근에 전시를 열었던 미술관 인근에서 일한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한국이 상당히 가깝게 느껴진다.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접하면서 한국이 마치 이웃 나라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You must be busy preparing for the exhibition. What are your expectations for the show?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it and also to getting to know Korea. There is a very big Korean community in São Paulo, a large part of it working close to one of the best museums in Brazil, where I recently created an exhibition. In a way, this makes me feel close to Korea—Korea as remembered by those who are now in São Paulo—it is as if the country is around the corner, surrounding each and every member of its community.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포르투갈과 뉴욕, 상파울루, 루안다에서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 후는? 글썄, 아직 잘 모르겠다.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next work?** I have exhibitions planned in Portugal, New York, São Paulo and Luanda. After that I don't really know. Let's wait and see.

아티스트로서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예술을 하지 않았다면 도달하지 못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What is your ultimate goal as an artist?** To achieve what I couldn't have achieved if I didn't do art.